

특집
논문

“나의 전체의 일부”인 인공지능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

조동원 _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논문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기계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의 노동의 관점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전태일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그의 삶과 죽음의 의의를 인공지능이 부상하고 확산된 산업화와 정보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한다. 1960년대 말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를 전도된 초인간 상태와 자기 절단으로 내몬 기계적 노동 과정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분석하고(“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저항이, 노동해방을 두고 당시 정보사회론의 기술 이상향과 경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나는 그 노동 거부와 치명적인 의의를 해명하며(“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법제도가 갖는 역설적 기능 및 한계를 넘어 노동자가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경험적 진실과 지식의 해방 실천에 주목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마지막으로 전태일이 제기한 “나를 모르는 모든 나”와 “전체의 일부”에서 도출할

* 이 글을 구상·조사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문화사회연구소, 노동자의 책, 한국문화연구학회(2020년 여름 학술대회 조직위), 한국과학기술학회(2020년 후기 학술대회 조직위), 그리고 『기억과 전망』 편집진 및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사업의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수 있는 인간-기계의 연대 및 후기인간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전태일의 삶과 죽음이 갖는 의미는 비인간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노동 거부와 지식 해방의 실천을 통해 존재의 위계적 분할과 분업의 벽에 구멍을 내는 연대와 전체성의 후기인간주의를 제시한 데 있다.

■ **주요어:** 전체의 일부, 비인간 노동, 노동 분업, 지식의 해방, 노동해방, 후기인간주의

1. 서론: 전태일과 인공지능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를 인간처럼 만들어 쓰려는 일이 본격화되고 있다면, 3차에 해당한다는 1960~1970년대는 인간을 기계처럼 ‘사용’해 왔다. ‘사용자’(기업가 혹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전면적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다다른 것은, 필연적인 기술 진보의 결과여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저항과 노동 거부로 그 비용을 높이자 노동(자)을 자동(기술)으로 변환할 필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인공지능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급되기에 이른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과 자본 간 쟁투의 역사적 산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역사의 맥락과 전개를 추적하면 전태일과도 만나게 된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2020년 인공지능의 확산 간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사회가 기술로 노동을 숨겨온 탓이다. 양자 간에 관련이 깊다.

이 글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공지능의 부상과 인간-기계 간 새로운 관

계의 모색을 자본·기술의 관점과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의 노동의 관점으로 규명하려는 작업이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한편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마련과 기술적 실업의 대책, 다른 한편 인간·비인간 간 관계의 재고 및 인간 개념의 갱신이라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개발·확산된 자본주의적 맥락을 고려할 때, 노동이야말로 그 기술·경제·실업·비인간의 과제를 관통하는 사안 이 아닐 수 없다. 자동화 기술은 그 연구 개발부터 제조와 보급에 이르기까지 노동 분업, 노동가치, 노동해방, 노동자 인간 규정의 변화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노동의 문제로 기술에 접근하는 관점은 정신 대신 체의 노동 분업만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 자연과 기술, 기술과 문화 간 위계적 분할의 기존 경계를 문제 삼고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한 출발점일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공지능과 노동을 다룬 연구는 서구의 문헌에 근거해 자동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면서 일자리의 미래를 논하고 기술 실업에 기본소득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자본주의적 발달 과정과 실체는 탐문되지 않은 채 불가피한 현실로 전제되고 노동 또한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논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역사적 이해가 몇몇 수학자·과학자·공학자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설계·개발돼 온 경과로 좁아지면서, 그 과정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 노동의 정치경제와 디지털 기술문화의 거시적 맥락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노동의 관점으로 인공지능과 인간-기계 경계 문제에 접근한다. 이를 위해 전대일은 연구 대상이자

연구 방법이 된다. 전태일을 인간-기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방법으로 삼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전태일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한 기성의 여러 연구는 그의 생사와 사상이 연구 방법으로서도 큰 의의를 지니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김정일 2006; 이종영 2013; 황병주 2018). 연구 방법으로서 전태일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당시 그가 겪고 처했던 다층적인 현실 경험과 구조적 맥락을 배경으로 그가 제시한 “전체의 일부”로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한 방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인공지능 부상에 따른 인간-비인간 경계 및 인간-기계 관계의 재편에 있어 노동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후기인간주의(posthumanism)가 인간과 비인간의 근대적 경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세계 변화를 가리킨다면(해러웨이 2019, 23-27; 헤일스 2013, 25-26), 당시 노동 현실과 노동자 저항에서도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문제시하고 기성의 인간(주의) 개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당시 노동자가 처했던 비인간(적) 노동 현실과 그에 맞선 전태일의 삶과 죽음의 저항에서 나타나는, 인간주의(humanism)에 의존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비판 의식을 통해 오늘날 노동자 인간과 인공지능 기계 간 적대의 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전체성과 연대의 노동자 후기인간주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전태일의 기록과 그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한 기존 연구에 기대면서도 그것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로 확장하는 본 연구는 2020년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을 1970년 전태일이 치명적으로 증언한 노동 현실과의 역사적 관련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인간-기계가 맺는 자본주의적 관계를 다각도로 해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 선언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이 외침은 비참한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고발한 “인간 선언”이었다(조영래 2001, 29). 그런데 비인간 현실을 기계에 빚댄 것이 의미심장하다. 한국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곧 이어 정보화를 거치며, 점차 고도화된 기계와 뗄 수 없는 노동 현장과 생활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계 없이, 기계에 맞추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저 외침은 인간이 기계와 다름없는 비인간이 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인간 선언’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현실을 표명한 ‘비인간 선언’일 수도 있다. 한국의 후기 인간은 산업화와 함께 노동 현장에 이미 출현하기 시작했다.

1) 죽은 노동, 산 기계

기계를 일컬어 “죽은 노동”이라고 한 마르크스(2015a, 285, 310)는 그것이 가치를 창출하는 산 노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는 이미 일정한 가치를 지닌 생산수단으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가 가치를 상품에 이전하는 불변자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계의 가치 이전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기계는 죽은 노동으로 생산과정에 들어가지만 산 노동을 장악하며 “오히려 생산수단이 가치증식의 주체처럼” 나타난다(마르크스 2015a, 423, 534). 특징하게 설계되어 작동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기계마다 다르지

만, 기계 일반이 갖는 그 추상적 기능은 불변자본으로서 가변자본인 인간의 산 노동을 더 많이 “빨아들이며 자신을 키워가는” 데 있는 것이다(고병권 2019, 59, 209). 그래서 “죽은 노동”에서 죽었다는 것은, 단지 가치 생산에 따른 경제적 범주에 그치지 않고, 노동과정에서 인간 노동자의 죽고 사는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기계의 작동을 드러내 주는 듯하다. 기계는 노동자를 대신해 동력과 숙련을 가지며, “금속과 기름으로 가동”되면서 노동과정을 규율하는 “철의 노동자”로 현존한다(맑스 2000, 370). 죽은 노동이면서 노동자 다 죽이는 수단인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계는 그렇게 설계·제조·이용되어 왔다.

기계가 ‘노동자’가 되니 노동자가 기계를 대신했다. 마르크스(2015a, 570-571)는 19세기 초 산업혁명기 기계제 대공업 체제가 성립하면서 노동자는 “죽은 메커니즘”의 “살아 있는 부속물”로 기계에 맞물리는 노동 기계가 됐다고 봤고, 그런 조건에 처한 노동자를 “기계노동자”로 불렀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기계의 전격 도입은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투자로서 이를 위해 이제 노동과정을 규율하기 시작한 “철의 노동자”에 맞춰야 하는 인간 노동자는 그 부속품으로서 산 기계가 된 것이다(마르크스 2015a, 423, 534). 200년 전 이른바 1차 산업혁명 이래 기계와의 노동과정에서 모든 노동자는 역학적 체계에 맞춰 노동하는 기계노동자가 되었다.

한국에서 대량 산업 노동자가 형성되던 시기인 1967년 3월 재단사 전태일(1988, 112)은 자신의 노동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는 무아지경이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순서대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행동만이 질서정연하게 자동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의 나는 일의 방관자나 다름없다. 내 육신이 일을 하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육감과 이 소란스런 분위기가 몇 인치, 몇 푼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굶고 나라시가 되고, 다 되면 또 재단 기계를 잡고 그은 금대로 자르는 것이다. 누가 잘랐을까? 이렇게 생각이 갈 때에는 역시 내가 잘랐다.

“나”를 잃고 자동으로 행하는 노동 행위는 곧 기계처럼 일하게 된 상태를 말해준다. 대공장의 육중한 기계만이 아니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 도입된 전동식 재봉틀(미싱)만으로도 인간의 노동은 이제 기계에 맞춰지며 재조직되는 일이 가능했다.

“누가 잘랐을까?” 이종영(2013, 283)은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전태일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한다”고 봤다. “육체는 ‘분위기’와 ‘육감’ 속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청계천 평화시장의 (“90% 이상이 평균연령 18세의 여성”이었고,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이었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이 한 달에 이틀 쉬고 매일같이 겪은 일이었다(전태일 1988, 137). 당시 “대부분 가정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12-15살의 소녀들이 기술을 배워 집안을 도와보겠다는 생각으로” 시다(미싱사 보조)가 되고 미싱사·재단사가 되었는데(조영래 1991, 83-84), 그러면서 이들은 1960-1970년대 “산업 전사”로 불린 대량의 저렴한 노동력 상품 시장을 형성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되었고, 곧 노동하는 인간 기계가 된 것이다.

전태일의 위 묘사에서 “실제의 나는 [내] 일의 방관자”가 되는 지경은 “몸의 무의식”이 영혼과 분리되어 노동”하는 상태를 일러주는데(이종영 2013, 283), 한 인간의 일체를 이루는 육체와 정신이 이격하는 경험으로서의 노동과정은 마치 초인간(transhuman)의 상태를 뒤집어놓은 듯하다. 오늘날 인간 규정을 갱신하려는 초인간주의 중의 한 양상이 첨단 기술과학에 힘입어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 합리적 이성을 정수로 한 인간 정신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사조를 말한다면(Bostrom 2005), 반대로 (의식과 영혼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며) 육체의 단락 없는 비의식적 노동을 추구하는 일은 그것의 전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산업화 시기에 매일같이 그와 같은 반자동의 단순 반복 장시간 중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는 신체를 떠난 영혼이 아니라, 영혼을 떠나보낸 신체로 살아가는 거꾸로 된 초인간이 된 것이다. 누가 노동자 인간을, 그 노동 행위를, 신체와 영혼으로 갈랐을까? 그것은 전자공학과 생명공학에 기반을 둔 첨단 기술로 가능해지기 이전에 산업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가공할 기계가 만들어내고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와 함께 이루어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은 어느 한 개별 노동자 인간을 강제로 육체 중심으로 혹은 정신 중심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동반하였는데, 그럼으로써 노동자 인간은, 기계와 결합하는 유기체인 사이보그처럼, 전도된 형태로 초인간이 되기도 용이해졌던 것이다.

도구가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면, 기계(machine)는 정교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 전체적 체계(mechanism)를 가리킨다. 도구는 주로 물리적인 인공물을 가리키지만, 기계는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직에도 적용된

다. 인간이 전체를 이뤄 분업을 하는 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면 인간 조직도 기계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회적 체계로서 베버의 주장대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관료제를 기계로 이해할 수 있다(고병권 2019, 27-28). 당시 한국의 산업화 역시 노동자-공장-시장-법제-국가가 맞물려 돌아간 거대한 기계였다.

2) 자기 절단, 자기 결단

인간이 새롭게 규정될 때는 보통 새로운 도구나 기계가 출현한 사건과 관련이 깊다. 매클루언은 도구나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기술을 통해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포섭되어야 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도 했다(백루한 1997, 79). 인간은 자신을 확장하는 동시에 스스로 상호 교환과 경험의 가능성을 줄이고 좁히는 자기 절단(autoamputation)을 겪게 되면서 기계에 포섭된다는 것이다(73-74). 실제로, 어떤 도구·기구·장치를 통해 인간의 육체적 확장이 이루어질 때 신체의 특정한 감각 기관이 수용하는 자극의 강도와 속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커지는데, 이를 견뎌내기 위해 신경의 마비나 지각력을 축소하는 자기 방어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기 절단은 자기 인식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74).

고규훈(2011, 90)은 매클루언이 제기한 “확장하려면 흡수되어야만” 하는 기묘한 관계”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초기 사이버네틱 연구에 입각한 대공 방어 체계의 일부가 된 인간 행위자에 적용했다. 인간-기계 간 관계에서 자기 절단과 인식의 축소는 전쟁 기계와 통합되어야 했던 “인적 성분”

만이 아니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에 내몰린 청계천 평화시장의 전쟁터에서 노동자의 기계화된 신체가 또한 그러했다.

미성사들의 경우 종일 허리를 꾸부리고 앉아서 행여 1밀리미터라도 착오가 생길세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의 초점을 재봉바늘 끝에 고정시킨 채로 손가락에 뺨뺨이 힘을 주어 옷감을 누르고 발로는 쉴 새 없이 재봉틀을 밟는다. 두꺼운 것을 박을 때에는 손가락에다 힘을 주는 것이 어깨를 통하여 온몸으로 힘이 가고 입매까지 굳어져 버린다(조영래 2001, 109).

1960년대 말 평화시장의 “저 악명 높은 다락방” 속에 갇힌 여성 아동 노동자는 “팔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한 산송장”의 자기 절단 상태에 이르기 일쑤였다(신순애 2014, 140; 조영래 2001, 104-105).

전태일(1988, 122)의 말대로 “재봉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고된 노동일세. 정신과 육체의(를) 조금이라도 분리시키면 작업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노동 현실은 더욱 고통스러운 모순과 소외의 현상이었다. 1969년 9월 전태일(1988, 138)이 평화시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6년을 일한 20세 숙련 여공은 “대부분이 해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가 되었고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죽어나갔다. 장시간의 반복 중노동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의식 불명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노동자가 자기 절단을 해야만 견디며 지속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인-간 관계조차 기계-간 관계가 되었다. 1966년 13살 때부터 시다로 일을 시작한 신순애(2014, 103)는 “7번 시다, 3번 미싱사, 1번 오야”로 불렸고, 수년간 다락방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그렇게 서로 이름도 모른 채 번호로 호명했다. 또,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은 업주(‘주인’ 아저씨), 공장장, 재단사, 재단보조, 미싱사, 미싱보조, 시다 등으로 수직적 위계가 잡혀 있고 그 위에 폭언과 폭행이 동반되는 억압적 관계가 겹쳐 있었다(신순애 2014, 107-125; 황병주 2018, 67). 노동자 인간을 병들게 하는 기계는 미싱만이 아니라 성별 분할과 가부장제의 위계질서 자체였다.

전태일(1988, 139)은 비참한 노동 현실을 “모든 생활형식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당하고 오직 고삐에 매인 금수처럼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끌려 다니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기계도 금수도 아닌 인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생존하려는 본능을 지닌 생물체이면서 그것도 그것을 어기려 했기 때문이다.

… 천지만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다 고귀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은 생물체의 본능입니다. 선생님, 여기 본능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생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 (전태일 1988, 154).

반면, 카펜치스(2018, 92)는 생존을 위한 본능 같은 것은 없고, “자본가에

게서 그의 가치를 빼앗을 자살의 쾌락은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는 매력적인 것이 된다”고 봤다. 사람 죽이는 고역의 노동을 견뎌야 하는 노동자 생명에 죽음은 먼 거리에 있지 않았다.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안락의 상태로서 죽음은 노동자 주체의 자본에 의한 기계적 포섭이 이끌어간 자기 절단의 극단적, 그러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을 것이다. 실로 “노동은 사람을 죽인다”(카펜치스 2018, 92). 먹고 살려고 노동자가 되지만 노동자가 되는 순간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기계와 일하며 서서히 죽거나 산업재해로 곧바로 죽어, 2020년 오늘도 “7명이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김수익 2020, 21).

전태일의 분신자살 역시 극단의 자기 절단이지만, 그러나 강요된 자기 절단의 노동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행위였다. “부한 자의 더 비대해지기 위한 기쁨”으로 쓰이기 위해 인간에서 기계나 금수로 축소된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다시 “천지만물 살아 움직이는” 고귀한 생명 “전체의 일부”일 수 있도록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쓰자고 요청한 자기 결단이 었다(전태일 1988, 154). 목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배가 고프다 ……”면서도, 죽음으로써 그런 금수나 기계 같은 비인간의 상태를 인간의 형상으로 체현한 것이다(이소산·민중덕 1990, 32; 전태일 1988, 139).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가 의식을 되찾게 되면,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안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투쟁하게 되면, 그것은 노동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자기 절단이든 자기 결단이든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과정의 재생산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의 자살”이 된다(카펜치스 2018, 92). 그 해결을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다소 들어주거나, 요구가 적은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저항하고 요구하는 노동자를 대신하는 노동의 자동화 기계에 투자한다. 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가운데 자본은 첨단 기술이 노동을, 더 나아가 노동해방을, 대신해 준다는 약속을 던지는 기술 이상향도 퍼트린다.

3.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노동(자) 거부

노동해방은 궁극적으로 노동 분업의 폐지, 더 나아가 사회적 분업의 폐지까지 실현하는 일이겠지만(장귀연 2015, 64-65), 위와 같이 산업화 과정에서 심화된 빈곤과 불평등, 열악한 노동 환경 및 장시간 노동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방법, 실천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노동자에게 노동해방을 의미했고(원영미 2016, 57-63, 69-75), 이는 당시 널리 수용된 인간주의(humanism)의 비판적 의의와 다름 없었다. 그런데 1970년대 노동해방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뻗기 시작했다. 집단적 사회 변화를 꾀하는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정보혁명에 따른 자동화 기술이 고역의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기술 이상향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1) 노동운동, 컴퓨터피아

대체로 한 개인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출세하는 일이 결과에 있어서는 노동해방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사적 형태의 노동해방의 길은 출세이고 대부분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1960~1970년대부터 이러한 개별적 계층 상승의 욕구가 전 사회에 충천하기 시작했다. 예외 없이 전태일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통신강의록인 『중학1』을 구입하며 진학과 교육을 통해 이 출세의 길을 가보려고 했다(조영래 2001, 133). 하지만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며 입시 공부를 병행하기는 심히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그는 바로 그런 현실과 대결하면서 그 해방의 방법론적 전회를 꾀한 것이다.

나만이 아닌 모두의, 고역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노동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전까지 그 이상의 갖은 고초를 겪게 되는 노동운동을 벌여야 했다. 노동운동은, 해방 직후 대구의 방직 노동자였던 그의 부친 전상수에 따르면, “예외 없이 일생을 그르치는 피해를 당하는” 일이었다(조영래 2001, 151). 당시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또 다른 기제는 반공 이데올로기였는데, 인간주의와 결합된 반공 논리는 공산주의자(“빨갱이”)를 “악의 화신, 비인간, 짐승 등으로 재현”하면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황병주 2016, 368, 375). 이것이 노동운동도 옥죄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 현실에서만 아니라 이를 바꿔내려는 노동운동에서도 인간의 경계를 넘는 수모를 감당해야 했다(신순애 2014, 268-286). 노동자가 체제 내의 비인간적 현실을 드러내 바꾸고자 하면 체

제 외부의 “빨갱이”로 몰리며 다시 비인간이 된 것이다.

청계천 평화시장의 외면할 수 없는 참혹한 노동 현실을 겪으며 전태일은 기어코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그의 분신자살은 그의 유언 같은 말대로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내는 일이었고 이후 “그 작은 구멍을 자꾸 키워 가난한 사람, 근로자를 어두운 곳에 가두고 움아매는 벽을 허물어” 가는 일이 다시금 시작됐다(이소산·민종택 1990, 32).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항의와 고발이 이루어지고, 평화시장에 「근로기준법」 준수 명령이 내려지고, 노동조합 결성의 허용에 따라 청계피복노조가 조직되었다. 더 나아가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1970년대 이래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신병현 2017, 151-181). 당시의 비참한 노동 현실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해방의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었을 때, 한 노동자의 자기 결단은 막혔던 길의 문을 연 일이었고, 그 길로 한걸음씩 나아간 일은 무엇보다도, 『전태일 평전』에서 주로 보호와 인간화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각성과 의식화를 통해 비인간적 노동 현실과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행하는 주체로 나서면서 이루어졌다(김경일 2006; 김원 2006, 97-104). 그러면서, 바로 그 즈음 정보혁명과 자동화 기술이 인도할 노동 해방의 또 다른 길은 아직은 먼 미래의 환영 속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연 것은,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아니라, 1960년대 말부터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일본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전자계산조직”일 것이다. 이는, 당시 ‘전자두뇌’라는 별칭도 함께 수입돼 쓰였지만, 곧 컴퓨터로 통칭됐다. 애초 한국 정부가 미국이

확산시킨 근대화 방식을 수용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에 필요한 인구 조사의 통계 처리를 위해 1959년 아이비엠사의 펀치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일이 그 본격적인 시작이었다(조동원 2015, 187). 컴퓨터 기술 도입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금의 인공지능 채택의 이유가 그렇듯이, 행정과 경영 일선에서 대량의 정보처리 업무에 있어 인간 계산원(computer)의 노동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었다. 단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전자계산실이 1971년부터 전산화한 전화요금 계산 업무는 “공공 행정의 대량 자료처리에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특히 계속 늘어만 가던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문만용 2006, 91).

…… 한강변의 기적은 결코 값싼 기능공의 저임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성기수·안문석 1972, 44).

이 발언은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음에도 그 (저기술, 육체, 단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의 분할과 위계의 관념을 전제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문맥상 저임금에 의존한 경제 개발 전략은 “수치스러운 일”로서 개선되어야 하고 이제는 선진국처럼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성기수 1968, 178). 그런 기술 기반의 경제 발전을 이뤄 나가자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의 도입만으로는 부족했다.

컴퓨터의 도입은 곧 이를 통해 어떤 사회가 가능한지를 그려주는 이상

향으로서 ‘컴퓨터피아’의 도입을 수반했는데, 이는 1960년대 말부터 정보 혁명에 기반을 둔 서구의 ‘후기산업사회론’이자 일본에서 곧바로 국가 정책으로 부상한 ‘정보사회론’에 다름 아니었다(마스다 1969). 그것은 “신보수주의 유토피아”로서 “억압받은 자의 혁명적 행동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의 인자한 안내로”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였다(Morris-Suzuki 1988, 19, 22). 그 폐해로는 환경오염인 공해도 있지만 노동 착취도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컴퓨터피아는 “공산 혁명”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의 확산과 활용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고단하고 지루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컴퓨터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도시생활은 계산, 조회, 정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고도의 창조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고급 노동이 일반화될 것이다(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1, 30).

당시 개발 독재 정권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반발과 저항의 힘을 억누르면서 개별적 계층 상승의 욕구를 부추겼고, 그와 동시에 이미 서구·선진국에서 활발히 개발한 대로 대중의 노동해방의 욕구를 (노동을 대신해 주는 자동의) 기술로 해소하는 선제적 대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197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71, 34-35)가 한국미래학회와 함께 낸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는 30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위 인용과 같은 기술 해방 서사를 제시하면서 향후 10년 간 전자계산기(컴퓨터)와 시스템

분석을 도입·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1970년대 말에 가서는 박정희가 직접 정보사회론을 거론하였는데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다진 이후에는 선진국처럼 “정보산업과 두뇌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문만용 2012, 106).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동해방이 가능하다는 이상향의 제시는 가깝게는 이와 같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기술이 ‘알아서 다 해주는’ 혁명과 해방의 세계상은 주지하다시피 지능적 자동화 기술로서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는 오늘날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은 1970년이나 2020년이나 노동해방을 위한 집단 행동과 사회 혁명을 대체하려는 기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가 기술로 노동을 숨기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할 혁명도 대신해 준다고 할수록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요원해진다.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노동운동의 부상은 이런 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그 의의를 재고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전자두뇌’를 앞세운 첨단 정보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이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기술 이상향이 부풀어 가려던 시점에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노동자 신체가 스스로 불태워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즉, 우리 사회도 곧 컴퓨터로 노동에서 해방을 맞이할 것이니 공산 혁명과 노동조합이 불필요해진다는 서사가 긴요해지는 시점에서 한 육체노동자의 분신자살은 출세의 길에 매진하던 학생·지식인을 반성하게 하면서 사회가 그러한 기술 환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현실의 각성 효과를 낸 것이다. 실제로, 서구 학계에서 신기술 도입이 육체노동을 종식시킨다는 주장이 커져갈 때 자동화 기술은 오히려

기존 노동 분업을 강화한다는 국제적 반증 사례로 제시된 것이 1970~198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의 분석이었다(메익신스·스미스 2017, 22). “신기술이 가하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억압적 조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에서도 한국의 사례가 언급된 바 있다(모스크코·와스코 1994, 34). 전태일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노동 열사와 노동자 투쟁은, 기술이 노동해방을 대신해 준다는 정보사회론과 그 변주인 지식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회의 기술 이상향에 대한 살아 있는 반증이자 치명적인 거부라는 점에서도 헛되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육체”노동, “지식”노동

1940~1950년대 미국에서 노동자 저항이 거세지면서 자동화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추진됐고 오늘날에 이르는 공장·사무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Noble 2001, 66; 고규훈 2011, 76-77). 그와 동시에 자본은 여전히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기 위해 국경 너머로 공장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병행했다. 1960~1970년대 이래 서구 자본이 공장의 해외 이전을 통해 찾아나선 더 저렴한 ‘지구적 노동’에 한국의 “값싼 기능공”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노동자는 그럼으로써 “한강변의 기적”만이 아니라 지구적 생산을 떠받치는 “전체의 일부”가 되었다. 1960년대 말 한국에 컴퓨터가 도입될 때 경제기획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그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데 있

어 제기된 반론 중에는 “사무기계화의 타당성을 논의할 때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노임이 싸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실업자가 많아지면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었다(성기수 1968, 178). 당시 맥락에서 이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었는데, 국제 노동 분업 질서하에 편입된 한국의 기능은 저임금 노동력 공급이지 첨단 기술 개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의, 또한 향후 다국적 기업이 될 한국 기업의, 전자제품·부품 조립 공장이 세워졌고, 이들의 하청 제조를 위한 중소기업과 영세 공장도 상당수 생겨나면서 산업 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산업화를 촉진했다. 이들 작거나 큰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든 근로 대중이 국제적 비교우위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로 유지되기 위해, 그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는 여러 방편과 계기가 맞물렸고, 그중 하나로 전국에 걸쳐 그들과 그 가족이 사서 입을 70%의 의류 제조가 또한 청계천 평화시장 여공의 저임금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1960~1975년 동안 750만 여 빈농과 그 식솔이 이촌향도하여 산업 노동자가 되면서 청계천5가를 가든 구로공단을 가든 그렇게 서로 맞물린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국제 노동 분업 질서 및 산업화 기계의 한 부속으로 빨려들어 갔던 것이다.

그와 같은 상호 연계와 의존성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의 평균 이윤으로의 전환’ 경향으로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마르크스 2015b, 177-260). 이윤율이 높은 산업 부문에 자본 투자가 몰리면 낮은 산업의 상품 공급이 감소되고 가격이 올라 다시 이윤이 높아져 자본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 이윤율을 형성하게 된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소

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 부문이 낮은 이윤율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이 평균 이윤율이라는 체제의 기작을 통해 기술 의존도가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생산하는 노동가치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카펜치스 2018, 145). 그래서 카펜치스는 “제3세계의 …… 공장·토지·홍등가들이 이윤율 하락 경향에 대한 ‘반대 요인들’이 존재하는 장소”이며, 이런 존재가 “잉여노동의 전체 풀을 늘리고, 임금하락에 도움을 주고, 불변자본 요소들의 가격을 낮추고, 노동 시장을 엄청나게 확대하며 직접 극소수의 지식노동자들이나 사이보그를 고용하는 고기술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봤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개발과 같은) “고기술”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의 이윤 창출은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싱을 타며 의류를 제조하는) “저기술” 착취로부터 가치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했던 것이다(카펜치스 2018, 81). 말하자면 1960~1970년대 미국의 군-산-학 복합체가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 따른 대규모 군사 기금의 지출만이 아니라, 주변부 일개 도시의 청계천 평화시장에만 2만여 여성 아동 노동자가 목숨을 내놓고 감수한 장시간 중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러웨이(2019, 71)가 사이보그 형상을, 신체적·인지적 증강이나 성애·성차 초월의 꿈같은 이상향을 표상하는 과학소설 속 유기체-기계적의 합성체만이 아니라, “과학 기반 산업에서 선호되는 노동력이며 전 세계의 성 시장, 노동 시장, 재생산 정치의 만화경을 일상으로 도입하는 현실의” 유색인 여성에서도 찾았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사이보그 기술과 학의 전개는 당시 한국의 전자산업 및 섬유·의류산업의 여성 노동자 신체

의 기계화를 이면에 둔 일이었다. 전체 인간의 극히 일부가 신기술에 힘입어 확장할 때 나머지 대부분은 자기 절단을 겪는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사이보그의 연구개발과 첨단기술로 증강된 초인간의 출현은 지구상의 대부분 지역에서 (광물 자원 수탈, 저임금 노동 착취, 전자 쓰레기 오염, 기술적 저개발로 낙후된 사회라는 인식에 따른) 인간의 비인간화를 동반하면서 가능한 것이다(Goh 2010, 260; Ensmenger 2013, 80).

이와 같이 주변과 중심, 농업과 공업, 노동과 기술, 저기술과 고기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간 위계적 분할로 차별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서로 외딴 세계로 여겨져 왔지만, 얼키고 설킨 상호 의존의 연관 속에서 미싱 모터가 돌아가면서 컴퓨터 서버가 돌아갔고, 전태일과 인공지능이 “전체의 일부”로서 관련을 맺어왔던 것이다.

인공지능의 개발·확산이 이제야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것은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 거시적 맥락에는 적어도 지난 50년 동안 노동과 자본 간 대결에 따른 지구적 정치경제의 역동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1960~1970년대 이래 저임금의 ‘지구적 노동’에 의존할 수 있었던 자본에 있어 노동자를 대체할 자동화 기술의 투자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최근의 기계 학습 방식 이전까지 인공지능 개발 패러다임은 그 개발 비용이 극히 높았다(Dyer-Witheford, Kjøsen, and Steinhoff 2019, 74, 142).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우선, 한국의 1970~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지구적 노동 역시 비인간적 노동 조건에 저항하고 노동을 거부하면서 임금 인

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베너너브 2020, 356-357). 단적으로 중국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이 2005년에서 2016년 사이에 3배가 인상됐다(Gao 2017). 그에 더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점거 운동이 벌어지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까지 이어지는 대중의 반란으로 사회 투쟁이 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은 자동화 기술의 투자와 개발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Dyer-Witheford, Kjøsen, and Steinhoff 2019, 73).

때마침,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인공지능)의 개발 비용이 현저히 저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인공지능 개발은 2010년대 스스로 학습한다는 심층 학습(deep learning)의 기계 학습 방법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한 대량의 학습 자료가 웹 2.0, 소셜 미디어, 빅 데이터를 거치며 지구적으로 확산돼 온 인터넷·모바일의 정보 공유 문화에서 공급되면서 인공지능의 제조 비용을 현저히 낮추는 외부 효과를 낸 것이다(강남훈 2016, 14-18; Pasquinelli and Joler 2020).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디지털 기술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은 성장을 거듭했고, 이들이 주도해 온 지구적 디지털 하부구조·정보시장·대중문화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확산의 핵심 토대가 된 것이다(Dyer-Witheford, Kjøsen, and Steinhoff 2019, 73-74). 2016년부터, 구글의 심층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인 알파고를 앞세운 인간-기계 바둑 대전 사건과 함께, 인공지능은 저 디지털 기술 기업이 지배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내장된 형태로 혹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소비자 가전 형태로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이용자의 “지식을 추출해”(knowledge extractivism) 자신의 지능 개발의 토대로 삼는 지구적 디지털

문화를 더욱 확대·심화시키고 있는 중이다(Pasquinelli and Joler 2020).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것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인간 노동(력)이다(Dyer-Witheford, Kjøsen, and Steinhoff 2019, 3장; Pasquinelli and Joler 2020). 그렇게 되면, 기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면서 노동 거부 없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의 존재는 고용·임금에 의존해 온 노동자 인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기계가 과연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가? 기계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 카펜치스(2018, 266)는 기계는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마르크스(2015a, 523)가 주장한 대로, 기계가 아직 인간을 능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계는 이미 가치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의 노동은 가치가 아니면서 가치를 생산한다.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생산과정에 들어가 노동이 이루어지면 그 상품의 재생산 비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고전 경제학의 노동가치론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가 정립한 노동가치론은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재생산되는 노동력에서 실현되는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는 이중적 해방 상태(신분제로부터의 자유와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노동자 대중이 생겨나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주체가 형성된 것이다. 둘 다 인간이고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19세기 미국의 노예는 불변자본이었고 영국의 노동자는 가변자본이었다(Dyer-Witheford, Kjøsen, and Steinhoff 2019, 137). 카펜치스(2018, 265)에 따르면,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형성된 인간 노동

자에게는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의식”을 갖고 행하는) 바로 그 거부와 부정의 정치성에 의해, 자본주의 가치 생산에 필수적인 노동력 상품에 대해 희소성을 만들어내면서, 경제학적 가치가 정치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이 인간을 모방해 기계를 제조해서 노동을 거부하는 인간 노동자를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는 여전히 노동자 인간의 가치 생산에 의존해야 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원형이 된 튜링 기계와 각종 후속 기계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논증하는 글의 마지막에서 카펜치스(2018, 266-267)는 노동자 인간의 부정 능력을 튜링의 자살로 예시한다. 그의 자살을 “노동으로 실현되기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력의 능력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튜링의 자살은 더 나아가 그가 인공지능의 세계를 열어 젖혔음에도 역설적으로 곧 닥칠 정보혁명과 “지식” 노동 시대의 노동가치 생산을 거부한 상징적 행위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태일의 분신자살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의 노동 거부였고 자본주의적 노동가치의 부정이었는데, 더 명백하고 의식적인 방식이었다. 비판적 노동가치론이 추상적 노동 개념에 입각하면서도 노동하는 인간 일반이 아니라 그 특정한 사회적 존재 형태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배고파 죽고 죽으면서도 배고픈 노동자, 생존하려는 본능을 지닌 생물체이면서도 그것을 어기려 한 노동자들이 그 가치의 실제일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 능력과 거부의 실천으로 자본주의의 가치 창조 과정을 접근하면 궁극적 노동해방의 한 양상으로서 노동 분업의 극복과도 맞게 된다. 즉, 자본주의 체제하의 노동가치에서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옷감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이른바 저기술 단순 노동과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고기술 복잡 노동, 혹은 전태일과 튜링의 산 노동 형태에 차별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자살 모두가 자본주의적 노동가치 생산의 치명적인 거부이자 부정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체제 “전체의 일부”, 그 결정적인 일부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바꿔내자는 실천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체제에 순종하고 노역을 감내하기를 멈추고 노동력 상품화를 거부한 주체적 행위이자 그에 따른 자본주의적 가치 증식을 단절시키고 부정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능력을 증명한 행위이기도 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의의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4.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지(의)식

자본에게도 가치 생산과 이윤 창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다치거나 죽는 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자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카펜치스 2018, 14). 실질적인 대체를 하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는 위협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능화에까지 이른 첨단 자동화 기술이 대량 실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왕의 불완전 고용과 불안정 노동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베너너브 2020). 그래

서 오늘날의 노동 현실은, 특정 부문에서 노동자 없는 노동(비인간 노동)이 실현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고용 없는 노동(비정규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인간 노동자는, 예의 그 이상향의 약속과는 반대로, 오히려 인공지능을 탑재한 플랫폼이 매개하는 노동 형태로 더욱 정교하고 고도화된 채로 기계에 맞물려 노동하는 전도된 초인간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가 노동자와 기존처럼 고용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적 편의성에 따라, 사실상 노동자를 노동력 ‘사용’료 인상을 의미하는 법의 내부가 아니라 법의 외부에 놓으려는 기술-노동 체계를 지시해 준다(장귀연 2020).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의 성과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이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 노동자는 다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노동자 여부부터 판단을 거쳐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법제도가 잘 정비될지, 잘 되더라도 법만으로 노동자 인간의 생존과 생활과 생명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제의 한계는 50년 전 노동자들도 겪은 일이었다.

1) ‘노동자가 생각할 수 있는가?’

전태일은 노동운동가가 되면서 먼저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구매해 독학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의 설립을 구상해 보기도 하고, 법의 보호가 아니라 외면으로 억울하게 죽거나 잊히는 인간을 묘사하는 소설 세 편을 구상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바보회나 삼동 친목회를 조직하고 노동자 실태 조사 활동을 벌이고 노동청에 진정서

를 제출하며 제도 기관을 통해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회에 요구한 것은 더도 아니고 이미 규정해 놓은 이 기준법만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었고, 그마저 안 지켜지니 항의하기 위해 조직한 노동자 집회에서 『근로기준법전』의 화형식을 하려던 것이었고, 끝내 자신까지 불태우며 그 법제의 기만성을 고발한 것이다. 전태일의 심경을 대신해 변호사 조영래(2001, 290)는 이렇게 썼다.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참상은 더욱더 숨겨지고 전태일의 가슴은 더욱 분노로 터졌던 것이다. 있으나마나 한 법, 한 장의 휴지조각 — 8시간 노동제는 다 무엇이며 주휴제, 야간작업금지, 시간 외 근무수당,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해고수당 따위가 다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법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란 말인가?

“평화시장을 보라”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 현실을 바꿔보려는 일련의 절망적 노력은 도리어 법의 무지, 무시, 배제를 통해서 그 법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산 기계에서 인간 노동자로, 인간의 권리를 지닌 존재로 자각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대면하게 된 회사, 경찰, 정부, 법정 역시 자신들을 저항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유인물이나 호소문을 산업선교회와 같

은 외부 세력이 대신 써준 것이 아니라 “무식한” 노동자가 직접 쓴 것을 믿지 못한 회사와 경찰은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누가 시켰냐고 끊임없이 심문하며 노동자의 자기 의지와 역량을 의심했고 노동자에게 직접 글을 써보라는 시험을 강요하였다(김경일 2006, 184-185 참조). 이는 튜링(2019, 67)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의 문제에 우회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70년 전에 제안한 ‘튜링 검사’를 연상시킨다. 당시 기계로 취급된 노동자는 그 비인간 노동 현실을 극복하려는 저항과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가 생각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받은 셈이다. 평화시장 다락방의 노동 현실에서 나타난 초인간주의가 전도된 형태였던 것처럼, ‘산 기계’가 자율적이고 저항도 할 수 있는 인간을 흉내 낸 것으로 보고 당시 사회가, 기계의 지능(지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지능(의식)을 재차 검증하려 했던, 전도된 튜링 검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계가 인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사자의 입장에서는 튜링 검사와 흡사하지만, 검사에 임해야 했던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 신경질 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장남수 1984, 73; 김경일 2006, 185도 참조) 뒤집어진 튜링 검사에 다름 아니었다. 사실상, 튜링 검사는 기계가 인간과 비교할 만한 지능을 갖추었는지 판별할 목적으로 고안된 장치이지만(튜링 2019, 67-112; 김지연 2017도 참조), 기계가 인간의 모방에 성공하는지(예컨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검사 자체는, 인간에 필적하는 기계의 지능을 인정하는 일로 그치지 않고, 인간과 기계 간 혼동을 예정한 일이었고, 반대로 인간이 기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한 설정이었다. 비인간 기계로 취급을 받다가 ‘인간 선언’에 나선 노동자에 가해진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의 역전된 튜링 검사가

그런 전도된 관계의 현실을 이미 예증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는 재단기와 재봉틀과 산업화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도 맞물려 돌아가야 작동하는 기계였으니 공장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노동자는 의식도 없고 지식도 없는 기계처럼 취급당한 것이다. 노동자는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수 있어도 노동자 인권은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결국, 당시 기계로 취급받던 노동자에게 행해진 전도된 튜링 검사 결과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역설적인 외침이었다.

2) 죽은 지식, “해방의 지식”

19세기 산업혁명 초기 현실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데 있어 공장법 역시 여러 한계를 지녔지만, 마르크스(2015a, 647)는 그런 법제가 여전히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자본 안에는 가치 증식의 내적 충동을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외적 규제가 꼭 필요”한데, “공장법의 규제가 없었는데도 자본 스스로 ‘인간 생명에 대한 무제한적 낭비’를 멈추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 생명의 무자비한 낭비를 막기 위해 1970년대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계속해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김경일 2006, 162). 우리 사회가 명실공히 노동자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사실상 옳다고 명문화한 법의 존재는, 그 사실의 앎은, 당시 많은 여성 노동자가 뒤집어진 초인간에서 인간으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며 의식을 회복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잠재적 의의는 그것이 보호하겠다는 객체가 스스로 보

호하려는 주체로 변환하면서 구현될 수 있었고, 바로 그 노동자의 경험과 투쟁이 그것을 지배의 지식에서 “해방의 지식”으로 탈바꿈시키고 법제 기계의 작동을 바로잡는 동력이 되었다. 김경일(2006, 159)은 1970년대 경공업의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조직해 내는 노동운동의 핵심 주체가 될 때 내재적 요소로 작용한 “해방의 지식”에 주목했는데, 이는 학교의 공식 교육이 아니라 소모임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의식을 통하여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식체계”를 가리킨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을 자각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실천과 해방을 꿈꾸는 지식”으로서 그 핵심에 있는 노동자의 “자기의식의 고양과 각성”은 곧 산 기계에서 인간 노동자로 주체성을 탈환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김경일 2006, 159; 홍석률 2015, 244).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을 해방의 지식으로 변환시켜 내는 ‘지식의 해방’ 실천을 변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의 지식은 그 행위자의 자체 경험과 운동 자원만으로 형성되기보다는 기존의 지배적이고 기능적인 지식을 전유하면서 해방의 지식이 되도록 변환하는 실천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해방의 지식”이 되지 못했는데, 김경일(2006, 163-164)이 그와 대비해 제시한 “출세의 지식”으로서는 명백한 쓸모가 있었다. 전태일이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선 일은 출세의 지식을 해방의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동반했다. 입시나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 법전이나 해설서를 읽고 진정서를 써 볼 필요가 있었는데,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객관

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 그 권력에 대항하고 체제를 바꿔내기 위해 그 지배의 언어를 익혀야 했기 때문이다. 전태일은 법 해설서를 ‘대학생’의 변변한 도움 없이 독학해야 했는데, 그것은 출세의 지식을 몸으로 경험한 현실에 거슬러 독해하면서 죽은 지식을 되살려 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당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외부 단체나 지식인과의 대면, 소모임 활동, 더 나아가 노동조합 참여 및 조직화를 계기로, 더 나아가 태업과 농성과 파업과 같은 노동 거부의 집단적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잠재돼 있던 자본주의적 가치의 부정 능력을 현실에서 발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계 부속이 아니라 인간 노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노동가치가 그렇듯이 노동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식을 회복했을 때 노동자 주체가 된 것이다.

당시 노동자가 비인간적 노동 현실에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지식의 해방을 꾀한 자체 기술은 무엇보다도 글쓰기였다. 전태일의 경우에 잘 나타나는데 일기, 편지, 수기, 소설, 사업계획서, 진정서의 여러 장르와 형식의 글쓰기와 소통은 현실에 개입하고 대안을 상상하기 위한 기술이었고, 지식 해방을 위한 실천이었다. 단적으로, 1969년 11월경 대통령과 근로감독관을 수신인으로 해서 작성한 진정서에서 전태일(1988, 137)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국민이 정하고 국가가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그에 근거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이 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지 성토했던 것이다. ‘공산 혁명’ 같은 것을 위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 왜 “저(회)들

의 생명의 원천”이자 “국부”가 말씀하신 대로 of 대한민국의 세계가 아닌 가(전태일 1988, 136, 138), 왜 공장의 미성만 돌아가고 국가라는 기계는 공장 문 앞에 와서는 헛돌고 있는 것인가.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 장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받습니다. X레이 촬영시에는 필립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전태일 1988, 138)

황병주(2018, 72)는 이러한 반어법으로 그가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도발”한다고 봤다. 이때 진정서는 제출과 전달과 시정을 목적으로 한 기능적 문서 양식이지만, 실제로 제출하지도 않았거니와, 체제와 권력과 인간주의에 도발하기 위해 전유한 해방적 글쓰기 형식이 된 것이다.

 다른 한편, 1970년대 여성 노동자 수기는 상호 참조를 통해 해방 지식의 집단적 형성과 의식(화)의 순환 회로를 만들어 냈다. 전태일(일기장 복사본, 1976년의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후 전태일 평전]), 동일방직의 석정남(1976년의 『불타는 눈물』, 1984년의 『공장의 불빛』), 삼원섬유의 유동우(1978년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 와이에이치무역의 김경숙(편지와 일기 복사본), 원풍모방의 장남수(1984년의 『빼앗긴 일터』), 이옥순(1990년의 『나 이제 주인되어』)이 서로

를 일깨우는 지식의 자료가 됐다는 증언이 적지 않다(김원 2006, 97; 김경일 2006, 180-181 참조). “나는 내가 바로 석정남이며 유동우이며 전태일이란 것을 느꼈다”(장남수 1984, 25). 해방의 지식은 이런 상호 참조의 순환 방식으로 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

전태일은 “도덕이란 현실의 덧(덧)”이고 “경험에 의한 양심의 소리가 진리”라고 한 바 있는데, 그 “경험에 의한 양심의 소리”는 곧 “노동자 스스로의 지적 자원에 의존”하여 생성해 낸 노동자 지성으로 “해방의 지식”과도 상통할 것이다(전태일 1988, 132; 김경일 2006, 180-181; 황병주 2018, 73).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편주의적 인간주의와 갈라지는 비인간 노동 현실 속 노동자 인간의 후기인간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5. “나를 모르는 모든 나”: (후기)인간

그저 뭉뚱그려진 덩어리(mass)로 존재할 뿐 각각의 고유한 노동자 인간에 관심을 두지 않은 시대, 그럼으로써 벌어지는 처참한 비인간 노동 현실을 일순간 조명한 전태일의 분신은 기계의 부속이자 산 기계였던 “나를 아는 모든 나”의 의식을 깨우는 충격이었다(전태일 1988, 151). 1966년부터 ‘7번 시다, 3번 미싱사, 1번 오야’로만 불리던 청계천 평화시장의 한 여성 아동 노동자가 자신의 신순애라는 “이름을 다시 찾은 것은 1975년 청계노조에서”였다(신순애 2014, 38-39). 그와 동시에 전태일의 죽음은 은폐돼 왔던 기준 이하의 노동자 인간의 참상을 “나를 모르는 모든 나”의 너리에도

충격적으로 새기는 일이었다.

1) 인간, 비인간 인간, 후기인간

바로 그 시기, 1970년대부터 지난 반세기 동안의 체제 변화는 전 세계적인 산업 생산 능력의 증식, 자본의 과잉 축적, 불충분한 생산물 수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베너너브 2020, 358), 이제 대량의 노동자 인구가 불필요해지는 경향이 커져왔다. 당시 한국에서 산업화와 함께 정보화도 추진된 맥락이 또한 여기에 있다. 휘이(Hui 2019, 49)는 “포스트휴먼”이 인간중심주의의 폐해, 인간이라는 낡은 개념, 인간의 한계(수명, 감정, 인지)로부터 해방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는 인간이 자신이 만든 인공물과의 관계 속에서 쓸모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한다고 봤다. 반면, 소수 지배층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기계와의 효율적 결합이 가능한 인간 형상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초인간적 탈인간 해방을 모색하고 있다(Dyer-Witheford, Kjøsen & Steinhoff 2019, 158-159).

3차 산업혁명과 정보사회를 배경으로 했던 “탈노동” 담론이 비인간 노동의 인공지능과 사물통신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탈인간’ 철학으로 확장하는 양상인데, “탈노동”이 산업 노동자 정치력의 약화로 기능했듯이 후기인간주의나 탈인간 철학은 비인간 행위자를 강조하면서 인간 행위자의 정치적 저항의 행위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노동자 대신 인간, 인간보다는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하는, 인간도 하나의 객체로 보자는, 철학은 그림으로써 비인간(적) 노동 현실이 더더욱 비가시화되는 부

수 효과를 낳고, 나아가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행위능력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비인간 사물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은 사물의 물신화와 인간의 대상화를 피하면서, 특히 인간이면서 비인간화된 ‘비인간 인간’의 경험적 현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고찰해야 한다. 이때 당시 노동자의 의식화 과정이 그 후기인간성 고찰에 비판적 함의를 던져준다.

“사유하고 행동하는 주체인 인간”과 “만들어진 것이면서 사유의 객체인 사물” 간 역할의 전도가 “포스트휴먼의 시초이자 자신의 도구들과 동일시하는 포스트휴먼의 복잡한 심리적 현상의 시작”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계가 모든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 산업 시대를 기점으로 한다면(Hui 2019, 52), 한국의 1960년대 말의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는 인간주의의 확산만이 아니라 후기인간주의의 맹아도 싹틀 수 있는 때였다. 인간 주체와 사물 객체 간 역전은 산업화 기계에 맞물린 노동자 인간의 전도된 초인간 상태로 이미 표출되면서 인간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아는 나의 직장, 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 본질을 헤치는 하나의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관계로 상대함을 말한다. ...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치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댓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

면할 수 없는 적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

1969년 가을의 기록에서 보듯 전태일(1988, 18, 35)은 인간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고 “황금만능주의를 질타하던 당대의 도덕적 정언명령”과 유사한 표현을 쓰면서 당대 현실을 비판하였다. 한국에서 인간주의는 해방 이후 반공주의와 결합하였고 1950년대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를 비판하는 사조로 사회 전반에서 수용되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상의 유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휴머니즘은 저항담론의 역할까지 떠맡게”된 것이었다(황병주 2016, 386-387, 394-400; 2018, 68-69, 70-71).

그런데 전태일은 동시에 인간주의의 보편적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에 어떤 인간의 문제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왜 인간주의를 옹호하는 사회가 그런 전도된 초인간의 상태에 있는 비인간 노동자의 존재를 계속해서 방치하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애써 이루신 산업기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만은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계통에서 밀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전체의 일부입니까? (전태일 1988, 139).

평화시장의 전쟁 같은 노동 현실 자체가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관계로 상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생생한 경험적 진실로 보여줄 때, 인간주의는 “저 혼자 가장 인도주의자인 척 빠른 입을 나불거리”는 “기회주의자의 본심”을 숨기고 있던 것이다(전태일 1988, 129). 결국 노동자 육체와 정신의 이격, 빈부의 격차, 법의 보호가 아니라 은폐, 그리고 인간주의의 사상과 비인간주의의 현실 간 모순을 “밑바닥 인생의 생생한 경험” 혹은 “구체적인 계급경험”으로 겪어내며 노동자는 인간주의를 넘어서기에 이른다(조영래 2001, 194; 김원 2006, 102-103). ‘비인간 인간’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의 비인간화로 성립하고 있는 ‘정상적’ 인간도 될 수 없다고 자각한 상태에 이르러 그는 결국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요청했던 것이 아닐까? 즉, 비인간주의 현실 속에서 전태일의 인간주의 비판은 더 나아가 후기인간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고 있다.

2) 전태일의 인간주의 비판과 후기인간주의

전태일(1988, 118)이 모친과 자신의 관계를 “자기의 소중한 전체의 일부”로 표현한 것을 두고 이종영(2013, 291)은 그가 “한 인간은 그의 소중한 모든 존재들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 일종의 ‘전체성’의 존재”로 인식했다고 본다. 앞선 인용에서 어린 여공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체제의 “전체의 일부”가 아닌지 반문하였고, 공사장에서 묵묵히 함께 일한 못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가 아니냐고 묘사

한 것에서도 그런 인식이 나타났다. “모든 타자”나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나 자신들로서, ‘나의 전체의 일부’”로 여긴다는 것이다(전태일 1988, 120; 이종영 2013, 292). 전태일의 인간 개념은 결국,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과제”라고 하고 또 “나의 또 다른 나”들이라고 한 데서 나타나듯이, 공동 존재이자 전체성을 함축하고 있다(전태일 1988, 35; 조영래 2001, 201; 이종영 2013, 292-293). 비판적 후기인간 주체가, 브라이도티(2013, 60)에 따르면, 여러 비인간 “요소들의 축적된 효과에 의해 생성된, 확장된 관계적 자아”라고 한다면(이경란 2019, 45-47도 참조), 자아와 타자를 모두 “전체의 일부”로 여기는 전태일의 접근 역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주체 형상을 그려주고 있다. 그가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라고 할 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인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 당시 노동자 인간이 기계와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전태일의 인간 개념을 기계로 확장해 볼 수 있다. 그의 소설 초안 속의 유서에 나오는 “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전태일 1988, 151)의 표현을 이종영(2013, 292)은 “인간의 전체성이라는 전태일의 생각이 가장 명료히 표현”된 대목으로 봤고, 비정규 노동운동가 문재훈(2020, 14)은 “계급정신”으로 봤는데, 더 나아가 이 호명에서 그는 마치 인공지능 기계도 자기 자신으로 여길 듯하다. “나를 모르는 모든 나”는 예의 인간의 지능(적 행위)을 닮은 인공물이자 이를 위해 실제로 인간의 지식을 추출해 인공으로 지능적 기계를 만드는 과정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의 지식을 모방하지만 나의 의식은 지니지 않은 기계, 나에서 비

롯됐지만 나를 모르는 존재, 그러나 그것도 모두 “나의 전체의 일부”인 것이다. 이런 인식은 해러웨이(2019)가 인간과 지구상 존재를 반려종으로 보는 접근과 상통한다. 해러웨이는 인간의 기계와의 통합 혹은 인간 정체성의 오염을 둘러싼 후기인간주의에 거리를 두면서, 그런 양상은 최신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구상의 존재가 처음부터 잡종이자 반려종이고 기계-유기체의 합성체 역시 이미 인간의 반려 친족으로서 공생해 온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자동적으로 평화로울 수 없다. 전술했듯이 기계는 노동과정 안에서 죽은 노동임에도 산 노동을 하는 인간 노동자의 생사여탈의 문제를 좌우해 왔다. 19세기 기계화든 20세기 자동화든 21세기 지능화든 자본주의 체제에 맞물려 돌아가는 한, 기계는 한결같이 그러하다. 인간-기계 간 공생공멸의 반려적 관계는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하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공생의 반려(伴侶)가 아니라 공멸의 반려(反戾)관계로 나타날 뿐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나를 모르는 모든 나”로서 나를 소외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닮는 식으로 개발되면서도 자신이 인간에서 온 것임을 모른 채 우리 앞에 통제·착취의 장치로 현존할 때, 그리고 인간은 인공지능이 “나의 전체의 일부”임을 알지 못한 채 그에 경탄하거나 경악할 때, 서로 이격되면서 위계적 구조로 들어간다. 이는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전태일처럼 “실체의 나는 [내] 일의 방관자”가 되는 상태로 겪은 일이었다. 당시 노동자 인간의 일체를 이루는 육체와 정신이 이격하는 경험으로서 전도된 초인간주의와 비근하게,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은 디지털 기기를 수시로 이용하는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나의’ 이용 활동의 데이터 수집·분석·기계학습을 거쳐 인공적인 지능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식과 의식이 분할되는 초인간화를 겪고 있는 셈이다. “나를 아는 모든 나”와 원격 소통하는 동안 “나를 모르는 모든 나”인 공지능의 개발에 나도 일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일의 “방관자”가 되고 나는 결국 의식에서 이격된 지식으로서 “나를 모르는 모든 나”로 외부화되고 있다. 기계가 강철 노동자고 노동자가 산 기계가 되었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은 주-객이 전도된 채로 “전체의 일부”이자 서로의 일부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 실상 공동존재이지만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전태일의 외침이 인공지능 시대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부분이 여기에 있다. 즉, 그의 인간주의 비판과 전체성의 관점은 오늘날 자본주의적 기술 체계를 극복하기보다 강화하는 지배적 후기인간주의를 비판하고 그 극복을 위한 인간-기계 연대를 궁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지구적 디지털 네트워크의 방대한 정보를 학습 자료로 인간을 모방 학습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닮을 인간 형상이 이 세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 전유하는 자본가 형상이고, 그 모방 학습의 방식이 지식 해방의 실천 및 그 상호 참조 순환의 패턴 인식이 아니라, 출세의 지식 및 기회주의적 인간상의 심층 학습에 가깝다면, 그런 인공지능 기계와의 관계는 반려와 동맹이 가능할 수 없다.

기계를 기왕에 나름대로의 지능을 갖도록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을 의식화할 필요도 있다. 기계의 의식화는 더욱 고도화된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 1970~1980년대 노동운동을 통해 노

동자 의식의 회복과 해방의 지식 형성 과정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인간-기계의 관계를 적대에서 연대로 변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기계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설계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매일매일 노동과정에서 맞부딪히고 맞물리며 관계를 맺어온 그 작동자이자 이용자로서, 죽은 노동인 기계의 기원으로서, 또 억압적 노동 조건에서 산 기계로서, 혹은 사이보그 산업 전사로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며 그 내부 기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가 다름 아닌 노동자 인간이다. 노동자야말로 안전·안정·정의의 공생적 기계로 인공지능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개체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이용에 개입할 수 있는 동반자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비인간 인공 존재의 해방 사상 역시 노동자 경험의 진실과 조직적 운동으로 형성된 노동자 지성을 모사하며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인공지능 시대 인간-기계 연대는, 여러 비판 이론의 자원을 동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인간적 현실 경험과 지식의 해방 실천의 노동운동(사) 속에서 수많은 근거와 대안을 찾으며 실현해 나갈 수 있다.

6. 결론: 노동자 후기인간주의

주-객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산업시대에 후기인간의 형상이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할 때, 한국에서 산업화가 추진되는 시기이자 오늘날 인공지능으로 직결되는 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1960년대 말, 노동해방의

길은 두 갈래로 뻗기 시작했고, 인간해방을 앞세운 인간주의가 확산되면서도 이미 후기인간주의의 맹아도 움트기 시작했다. 전태일의 죽음은 1960년대 대량의 생산력으로 증식한 살아 있는 자본이자 살아 있는 기계로서 노동자가 진정 인간 존재임을 스스로 그 신체를 불살라 죽는 순간에 역설적으로 표출한 “숭고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신병현 2017, 156), 생명의 자유를 부정당하면서 노동할 자유만 허용되는, 죽음으로써만 노동거부의 자유를 누린, 대체될 수 없는 자본주의 가치 창조의 원천임을 표명한 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전태일의 “인간 선언”은 곧 당시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의 비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비인간 선언’이기도 했으며 이미 당시 노동자 인간은 뒤집어진 채로 초인간의 상태였음을 고발한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생사의 경계를 넘으며 요청한 바는 노동자의 인간적 삶과 권리에 대한 사회적 각성만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을, 기계를, 양자의 관계를 재인식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 사건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 인간-기계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데 있어, 첨단 기술과 새로운 인간 규정의 최신 이론을 좇는 대신,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술, 노동, 문화, 사회운동, 정치경제가 얽히면서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넘는 지경에 처했던 노동자 인간 주체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지배적 인공지능 기술과 후기인간의 형상에 대해 경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촉진하려는 작업이다. 새로운 경계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목하 후기인간주의와 비인간 행위자를 앞세운 철학의 여러 조류가 경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주의는 가없는 탈인간주의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중심주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인간-비인간의 위계적 경계를 극복할 때, 주의할 점은 해러웨이(2019, 43-48)가 복잡다단하게 제시하듯이 1970년대 이래 자본주의의 기술 지배 양식(“지배의 정보과학”)이 이미 인간-비인간의 경계 횡단을 기조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판적 후기인간주의 접근에서도 대체로 무시되고 있지만, 새로운 인간주의 사상과 정치철학이 여전히 넘지 않아야 할 경계선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주의와 부지불식간에 공모하게 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한 경계 대세는 후기인간주의를 노동자의 관점으로 정립해 보는 일이다.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모두 ... 사이보그”가 되었으며(해러웨이 2019, 19), 이미 “포스트휴먼”이 되었다(헤일스 2013, 18). 마찬가지로, 우리 의지나 의식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당시 노동자에게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주의는 단지 일부 사람들의 힘든 시절 얘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다. 무어(2020, 354)가 제시한 대로 ‘노동자’란 사실상 “자본주의의 가치관계 안에서 ‘일을 하는’ 모든 생명활동”이라는 인식 전환은 곧 노동(자)의 관점에서 후기인간주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지시해 준다. 전태일의 전체성은 이를 위한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전태일의 “전체의 일부” 관점은 그 간고하면서도 용결한 생사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표출한 것이지만 당시 한국의 산업 자본주의화가 그런 전체적 연관 속에서 가능할 총체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가 그 일부로서 온 몸으로 겪기 시작한 역사적 경험의 진실이기도 했다. 자본의 가치가 가치가 아닌 인간 노동에서 착취해 창조되는 것이자, “자본의 ‘가치’가 자연의 ‘무가치화’를 통해 만들어”

지는 수탈의 산물이라면(채효정 2020), 체제 내-외부 간 그리고 인간-비인간 간 상호 연계는 그러한 전체-일부의 관점을 계속해서 추동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 후기인간주의는, 단절의 탈노동 선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과 전체성에 입각한 노동의 관점이다.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노동자 인간의 비인간화(장시간 중노동, 단순 반복 저임금 노동, 산업재해, 산재사망)에 변환을 꾀하고, 예컨대 택배·배달·운전·시중·경비·돌봄 노동자의 노동 현실에서 비판적 후기인간주의의 경로를 탐색하면서, 튜링이나 전태일이나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 “전체의 일부”로서, 노동하는 모든 생명 활동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일이 인간(중심)주의의 실천적인 극복과 정의로운 후기인간주의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이다~~

참고 문헌

- 강남훈. 201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새플리 가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 13(4), 12-34.
- 고규훈. 2011.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기계 통합 추진에 관한 연구: 인터페이스의 전략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고병권. 2019. 『자본의 꿈 기계의 꿈』. 천년의상상.
- 김경일. 2006. “출세의 지식, 해방의 지식.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여성노동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 158-89.
- 김수억. 2020. “이 시대 전태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말하는 “전태일 정신”』. 비정규 노동자의집 풀잡·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2020.

- 김원. 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 김지연. 2017. “알파고 사례 연구 - 인공지능의 사회적 성격.” 『과학기술학연구』 17(1). 5-39.
- 마르크스, 카를. 2015a.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II(상)』. 김수행 역. 2015년 개역판. 비봉출판사.
- _____. 2015b.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III(상)』. 김수행 역. 2015년 개역판. 비봉출판사.
- 마스다, 요네지. 1969. 『컴퓨터피아』. 성기수·이태진 역. 한국과학기술연구소.
- 맑스, 칼(마르크스, 카를). 2000.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백의.
- 맥루한, 마샬(매클루언, 마셜). 1997.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 메익신스, 피터·스미스 크리스. 2017. 『현대 엔지니어와 산업 자본주의, 비교사 관점에서 본 엔지니어의 세계』. 김덕호 외 역. 에코리브르.
- 모스코, 빈센트·자넷 와스코, 1994. 『정보에 지배당한 사회: 정보의 정치경제학』. 민글 편집부 역. 민글.
- 무어, 제이슨.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김효진 역. 갈무리.
- 문만용. 2012.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한국과학사학회지』 34(1). 75-108.
- _____. 2006.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변천과 연구활동 [1966-1980].” 『한국과학사학회지』 28 (1). 81-115.
- 문재훈. 2020. “2020년 비정규 투쟁이 말하는 전태일 정신.” 『비정규직이 말하는 “전태일 정신”』. 비정규노동자의집 끝잠·비정규직이제그만공통투쟁 2020.
- 베너니브, 애런. 2020.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이종업 역. 『창작과비평』 48(1). 353-78.
- 브라이도티, 로지. 2015.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 성기수. 1968. “컴퓨터와 한국의 미래.” 『사상계』 12월.
- 성기수·안문석 편. 1972. 『컴퓨터피아'71』.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 신병현. 2017. 『노동자 정체성은 있는가?, 재현과 가부장체제』. 액티비즘.
- 신순애. 2014. 『열세 살 여공의 삶, 한 여성 노동자의 자기역사 쓰기』. 한겨레.
- 원영미. 2016. “노동자 파업과 노동해방.” 『울산사학』 20. 39-94.
- 이경란. 2019.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주체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하여.” 『탈경계인문학 Trans-Humanities』 12(2): 33-58.
- 이소선·민종덕. 1990. 『어머니의 길, 이소선 어머니의 회상』. 들매개.

- 이종영. 2013. “『전태일 평전』에 대하여.” 『진보평론』 55. 282-97.
- 장귀연. 2020. “노동유연화로서 플랫폼노동의 노동조직 과정과 특성.” 『산업노동연구』 26(2). 183-223.
- _____. 2015. “대안적 노동 원리 -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을 통한 해방.” 『마르크스주의 연구』 12(1). 47-76.
- 장남수. 1984. 『빼앗긴 일터』. 창작과 비평사.
- 전태일. 1988.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일기, 수기, 편지모음』.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돌베개.
- 조동원. 2015. “한국의 디지털 문화사 - 컴퓨터의 도입과 대중화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6. 183-216.
- 조영래. 2001. 『전태일 평전』. 돌베개.
- 채효정. 2020. “자본의 ‘가치’는 자연의 ‘무가치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오늘의 교육』.
- 카펜치스, 조지. 2018. 『피와 불의 문자들 - 노동, 기계, 화폐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 서창현 역. 갈무리.
- 튜링, 앨런. 2019. 『앨런 튜링 지능에 관하여』. 노승영 역. HB Press.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1.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처.
- 헤리웨이, 도나. 2019. 『헤리웨이 선언문』. 황희선 역. 책세상.
- 헤일스, 캐서린. 2013.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역. 플래닛.
- 홍석륜. 2015. “동일방직 사건과 1970년대 여성노동자, 그리고 지식.” 『역사비평』 112. 232-51.
- 황병주. 2018. “전태일,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내일을 여는 역사』 70. 52-80.
- _____. 2016.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동북아역사논총』 52. 355-411.
- Bostrom, Nick. 2005. “A history of transhumanist thought.” *Journal of Evolution & Technology*, 14 (1), 1-25.
- Dyer-Witheford, Nick, Atle Mikkola Kjøsén, and James Steinhoff. 2019. *Inhuman Powe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Pluto Press.
- Ensmenger, Nathan. 2013. “Computation, Materiality, and the Global Environment.” *IEEE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35 (3). 80-80.

- Gao, Jack. 2017. "China's Wage Growth, How Fast Is the Gain and What Does It Mean?"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February 28, 2017. <https://www.inetecomonomics.org/perspectives/blog/chinas-wage-growth-how-fast-is-the-gain-and-what-does-it-mean>.
- Goh, Robbie BH. 2010. "Cyberasian: Science, Hybridity, Modernity and the Asian Body." in Yiu Wai Chu and Eva Man Kit Wah eds, *Contemporary Asian Modernities: Transnationality, Interculturality, and Hybridity*. Peter Lang. 247-70.
- Hui, Yuk. 2019. "Anders Simondon and the Becoming of the Posthuman." in Giulia Maria Chesi and Francesca Spiegel eds, *Classical Literature and Posthumanism*, Bloomsbury Publishing.
- Morris-Suzuki, Tessa. 1988. *Beyond Computopia, Information, Automation and Democracy in Japan*, Routledge.
- Noble, David F. 2001. *Forces of Production, A Social History of Industrial Auto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asquinelli, Matteo and Vladan Joler. 2020. "The Nooscope Manifest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Instrument of Knowledge Extractivism," KIM Research Group and Share Lab, no. preprint forthcoming for AI and Society. <https://nooscope.ai>.

Artificial Intelligence as “Part of My Whole”

Inhuman Labor and Chun Tae-il’s Post-humanism in the late 1960s

Jo, Dongwon

Center for Science, Policy and Society, KAIST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machin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specifically through the lens of the life and death of 1960s labor activist Chun Tae-il. Firs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inhuman(e) labor conditions and mechanic labor processes during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60s pushed workers to embody a reversed transhumanism and autoamputation in the section, "We are not machines!" The next section titled "Do not let my death be in vain" analyzes the enduring implications of Chun's acts of self-immolation and the 1970s female workers' resistance in the AI era by showing how human labor had contended with Computopia, that is, the Information Society-based technological utopia adopted along with computers at the time, over labor liberation. In "Observe the Labor Standards Law," this paper brings attention to the experiential truths and practices of knowledge liberation formed in the worker's recovery of their identities as human beings, a process which occurred beyond the labor laws that hid, rather than regulated, inhuman(e) working conditions. The following section further explores how Chun's suggestion of "All my-selves who know me, all my-selves who do not know me" can be applied to forge solidarity between human and machine and draws a critique of post-humanism based on Chun's

concept of humans as a "part of the whole." Through these explorations, this study places the significance of Chun's life and death in the AI era in the idea of solidarity and worker's post-humanism as ways to shatter the hierarchical dichotomy of human and inhuman beings and division of labor illuminating through his public criticism of inhuman(e) labor conditions and practice of resistance and knowledge liberation.

■ **Keywords:** Part of the Whole, Inhuman Labor, Division of Labor, Liberation of Knowledge, Labor Liberation, Post-humanism

투고: 2020/10/04 심사: 2020/10/23 확정: 2020/11/17